

IMF체제와 자가배합사료 활성화

IMF 체제하의 자가배합사료 활성화 방안



이 승 준 상무이사
(주)상원축산

국 내 양돈업계는 지금, 예기치 않았던 IMF사태를 맞이하여 사료가격의 폭등과 약품등 기타비용의 큰폭 인상으로 돈육 생산원가는 크게 올랐으나 돈가는 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으로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등 초비상 사태에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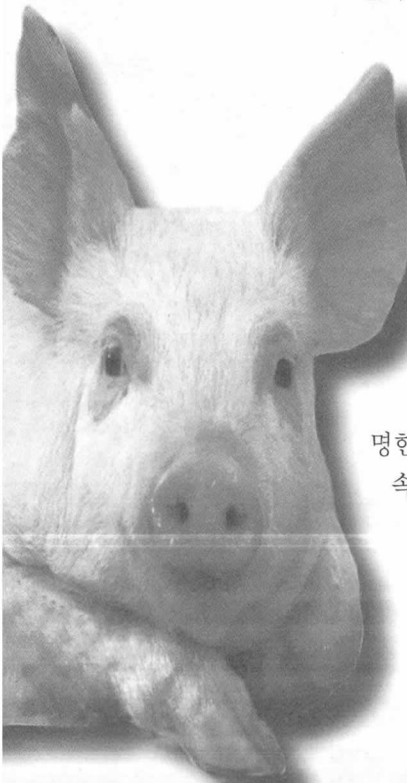
또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 향후 소비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대일 수출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수입돈육이 돈가를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어 많은 양돈가들이 양돈업 계속 여부의 기로에서 당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되는데 단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모돈을 고능력 종돈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해선 질 좋고 짠 사료를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양돈업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자가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주)상원축산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가사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상원축산의 경과, 상황

(주)상원축산은 1970년 농장설립 2년 후인 1972년에 자가배합사료 시



설을 완공하였는데, 초창기엔 빵가루를 말려 분쇄하여 사료로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옥수수를 주로하는 이른바 “농축사료”를 사료회사로부터 공급받고 대두박, 어분등 기타 단미사료를 직접 구매하여 국내 유명학자의 자문을 받아 최신 컴퓨터 시스템으로 생산하고 있다.

'97년말 부터는 고도의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일부사료(모돈, 포유자돈)는 전문 사료회사 제품이 보다 효과적일 듯 해 시판 배합사료를 구입 급여하고 있다.

2. 자가배합 사료의 유리한 점

1) 원가 절감

자가배합 사료는 무엇보다도 단가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데, 상원축산의 경우 시설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 제조 단가가 국내 최고품질의 사료 대비 약 15% 정도 저렴한 듯 하다. 이는 일반 사양가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숫자인데 그 이유는 첫째, 비싼 농축사료 때문이다. 옥수수를 직접 수입하지 못하고 일반 사료회사로부

터 소량의 다른 원료들과 1차 배합하여 구입하는데, 가공비 마진등이 포함되어 사실상 옥수수를 10%정도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소량 구매로 인한 단미사료 단가가 아무래도 다소 높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상원축산은 고능력 중돈에 맞은 고에너지 고단백 사료이므로 단가가 높은 편이다.

넷째, 배합사료 회사의 마진이 생각보다는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인 듯 하다.

2) 사양환경에 맞는 사료 즉각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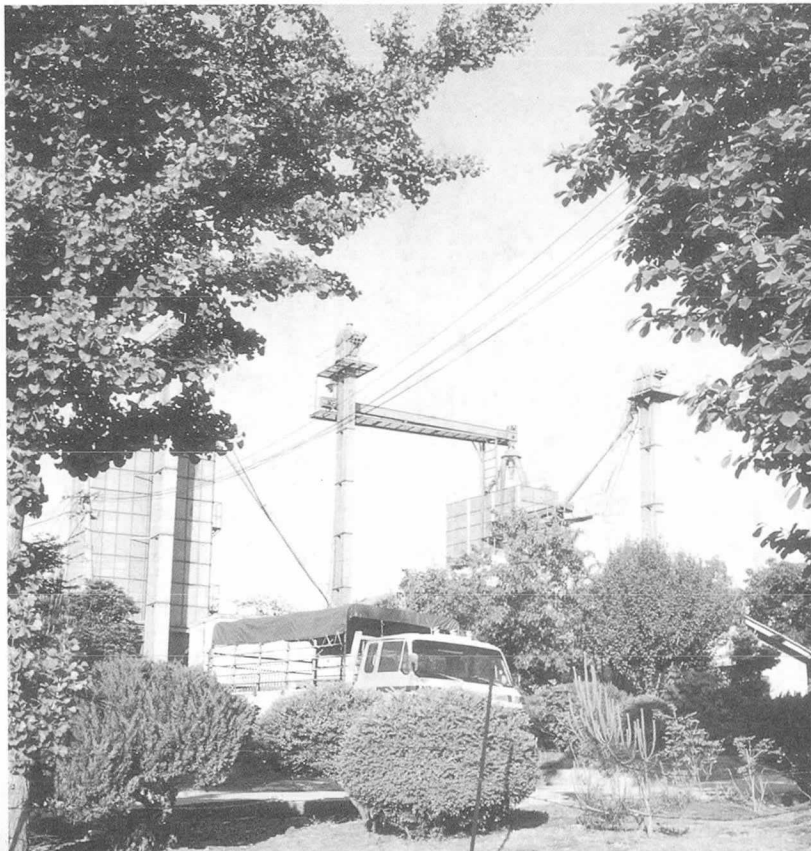
돼지 상태를 봐 가며 사료 배합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사양환경의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혹서기에 섭취량이 떨어지면 당밀 등을 추가하여 기호성을 높여 준다거나, 환절기에 적절한 약품을 첨가하여 호흡기를 예방한다는 점 등이 다.

3) 방역에 유리

질병을 전파시키는 주범으로 오인받고 있는 외부 사료 차량의 출입이 거의 없으므로 방역에 큰 도움이 되는 듯 하다.

옆/양돈업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자가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주)상원축산



4) 고능력돈에 적합한 배합비 가능

상원축산은 영국 NPD 중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여기에 맞는 배합비를 NPD로부터 받아 독창적인 사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는 자가배합이므로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

5) 사양관리 기술 향상

돼지 상태에 따라 사료 배합비를 조절하고 또 생산된 사료가 돼지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3. 자가배합 사료의 문제점

자가배합 사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제점도 적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이 잘 시행되면 상당 부분은 개선될 듯 하다.

1) 품질관리(Q.C.)

단미사료는 입고시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 매 입고 Lot마다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배합비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배합사료도 매번 분석하여 확인을 해야 하지만 분석시설의 미비, 전문인원의 불충분으로 어

려움이 많다.

2) 배합비, 배합기술 미흡

배합비 상으로 영양수준은 높지만 사육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사료생산의 기술이 아무래도 전문 사료회사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3) 원료 수급의 불안정

작년말 사료과동때 갑작스런 단가 폭등은 물론, 일부 업체는 물량 부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하여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정보에 어두워 시기적절하게 좋고 싼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창고가 부족하여 단가 인상시 다량 구입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다.

4) 비타민 첨가제 구입 곤란

자체 배합비에 맞는 비타민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만 주문 첨가(Custom premix)를 허용하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

5) 고부가 시설 부족

펠릿, 크림블 등을 할 수 있는 고부가 시설이 부족하여 보다 양질의 사료제조에 어려움이 많다.

4. 자가배합 사료의 활성화 방안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배합사료 활성화 방안」이 양돈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며, 아래에 제시한 방안을 참고하여 최대한 개선 되었으면 한다.

1) 옥수수에 석회석을 섞지 않는 "알곡" 그대로 공급

옥수수가 타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소위 「전용우려품목」이라고 석회석을 소량(0.5%) 회석하고 있는데 이는 별 효과가 없을 듯 하다. 그 정도의 소량으로는 채로 쳐서 "전용"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쓸데없이 가공비만 낭비될 뿐이다. 가공비는 인건비 전력비등 약 10%선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 "값싼 사료 생산"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세법등 관련법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농림부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현실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다.

업체가 너무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정규모 이상(예:월간 사료 천톤이상 생산농가 혹은 양돈 20,000두이상 사육농가등)에 만이라도 알곡만 직접 공급하여야 모처럼의 좋은 시책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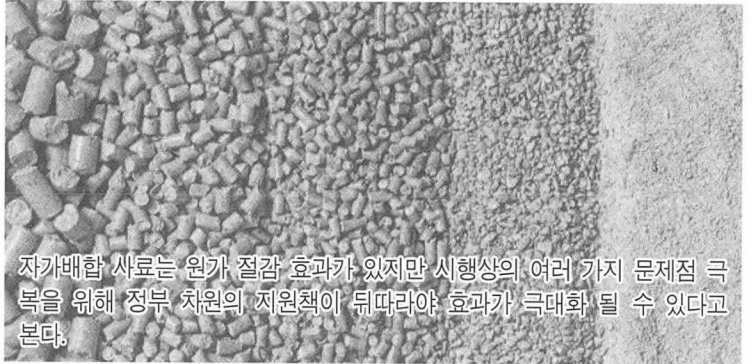
2) 옥수수 대금 현금결제 사양

옥수수는 USANCE로 외상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양축가의 이익을 대변 한다는 축협이 “채권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상으로 산 물품을 현금으로 판매”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료대금은 수개월씩 여신을 인정해주는 업계의 관례에 비추보더라도 축협이 아량을 베풀어야만 한다.

3) 비타민 주문첨가제 (Custom premix) 허용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허용하고 있는 주문첨가를 “자가 배합사료 업체”로 확대하여 개별 농가에 맞는 비타민제를 급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가배합 사료는 원가 절감 효과가 있지만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다.

4) 전문 컨설팅 업체의 육성 지원

사료는 원료의 단순혼합만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제조기술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배합비작성 뿐 만 아니라 원료 구입, 분석, 제조, 생산된 제품의 품질관리(QC), 사육성적 등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하고 나아가서는 사양관리 지도까지 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필요하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기술적인 뒷받침을 확실히 하여야 비로소 자가배합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고부가 시설자금 지원

분쇄기, 혼합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펠릿시설등 고부가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맺는말

자가배합 사료는 원가 절감 효과가 있지만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고도의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모돈, 포유자돈 사료는 무리하게 자가사료를 고집하지 말고 전문 배합사료회사 제품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전문 사료회사의 축적된 기술을 인정해 주고 그 기술력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라야만 진정으로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보다 좋은 사료를 보다 싸게 급여하여 돈육 생산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양돈인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맘 간절하다. **養豚**